

주요 문장 유형으로서의 영어 자동구동사 구문: 영어 학습과 교육에의 함의*

양현권 성민창
서울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English Intransitive Phrasal Verb Constructions as Major Clausal Types: Implications for English Learning and Teaching

Yang, Hyun-Kwon Sung, Min-Ch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RTICLE INFO

Article history:

Received Aug 17 2018

Revised Sep 25 2018

Accepted Sep 28 2018

Keywords:

intransitive phrasal verb,
intransitive motion
construction,
intransitive resultative
construction,
inheritance link

주제어:

자동구동사, 자동이동
구문, 자동결과 구문,
상속 연계

ABSTRACT

The paper explores constructional properties of intransitive phrasal verb constructions (IPVC) in English. It proposes that English IPVCs are grouped into two types: intransitive motion phrasal verb construction and intransitive resultative phrasal verb construction. Each type has an inheritance link relation with a major argument structure construction in English: the former with the intransitive motion construction and the latter with the intransitive resultative construction. This proposal enables us to contend that English IPVCs belong to major clausal types of the language. The paper concludes with pedagogical implications of constructional inquiry of IPVCs for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국문초록

본 논문은 구문문법의 이론적 체계에 바탕을 두어 자동구동사 구문의 구문적 본질을 탐구한다. 우선 자동구동사 구문을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과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으로 분류한 다음, 각 구문을 영어의 주요 논항구조 구문과의 상속 연계 관계에서 파악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이 자동이동 구문과 연계되고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이 자동결과 구문과 연계됨을 밝힌다. 이러한 논의에 바탕을 두어, 영어의 자동구동사 구문이 영어의 주요 문장 유형에 속하는 핵심 구문임을 제안한다. 더불어 자동구동사 구문에 대한 구문문법적 이해가 영어를 외국어로 익히고 가르치는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 본 논문의 심사본에 대한 논평자 세 분의 의견은 논지를 깊고 다듬는데 귀한 도움이 되었다.

** Corresponding author, minchang.sung@gmail.com

I. 들어가기

다음은 영어의 자동구동사(intransitive phrasal verb) 구문을 예시한 것이다.

- (1) He stood up.
- (2) The house burned up.
- (3) The boy came out.
- (4) The light went out.
- (5) The boy fell down.
- (6) The wind died down.

이 구문은 흔히 자동사적 이어동사(two-word verb) 구문 또는 자동사적 다어동사(multi-word verb) 구문이라고 불려 왔으며, 동사를 뒤따르는 표현—위 예에서 up, out 및 down—은 부사적 소사(adverbial particle)라고 불려 왔다. 이 글에서는 이들 표현을 조각말(particle)이라고 부른다.

영어 문장의 체계 및 분류에 대한 주요 연구 및 문헌에서는 자동구동사 구문을 영어의 핵심 구문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다음은 Quirk 등(1985, pp. 720-721)에 제안된 영어 문장의 핵심 유형을 가져온 것으로,

(7) Major clause types(주요 문장 유형)¹⁾

- SVO He'll get a surprise.
- SVC He's getting angry.
- SVA He got through the window.
- SVOO He got her a splendid present.
- SVOC He got his shoes and socks wet.
- SVOA He got himself into the trouble.

이 체계에는 자동구동사 구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Quirk 등(1985)에서는, 영어

1) Quirk 등(1985)에서는 (7)에 제시된 유형 이외에 SV 유형—예, *The sun is shining*—을 영어 문장의 핵심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장의 체계에 대한 다른 주요 연구 및 문헌(예: Huddleston & Pullum, 2002)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동구동사 구문을 핵심 구문과는 별도의 특수 항목으로 이해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동구동사 구문의 조각말이 동사와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전치사 수반 동사 등의 다어동사 구문의 한 가지 유형으로 이해한다(Quirk et al., 1985, pp. 1160-1161).

(8) Principal types of multi-word verbs(다어동사의 대표 유형)

- Phrasal verb(intransitive): come in/crop up
- Phrasal verb(transitive): send someone away/turn someone down
- Prepositional verb: receive something from me/take someone for a fool
- Phrasal prepositional verb: send someone out into the world/
put someone up for election

자동구동사 구문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위한 문법 체계에서도 일관되게 관찰된다. 다음은 영어 문장의 기본 문형에 대한 이해를 문용(2017, p. 3)에서 인용한 것으로,

(9) 문장의 주요소와 기본문형

- 1) S+V
- 2) S+V+C
- 3) S+V+O
- 4) S+V+IO+DO
- 5) S+V+O+C

이 체계에는 자동구동사 구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문헌에서도 자동구동사에 대한 논의를 구동사라는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여 제시한다(문용, 2017, p. 44).

(10) 구동사의 분류

- 1) 자동사적 구동사
- 2) 타동사적 구동사
- 3) 전치사 수반 동사
- 4) 전치사 수반 구동사

자동구동사 구문을 기본 문형에서 배제하는 이러한 관점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육의 실질적 기반을 이루는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도 관찰된다(교육부, 2015). 2018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육의 실제에서 적용되고 있는 “2015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영어의 언어구조적 체계를 “언어 형식”이라는 틀로 제시하는데, 다음은 그 가운데 영어의 문장 체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옮겨온 것이다.

(11) 2015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영어 문형

The baby cried. (SV)

She stayed in bed. (SVA)

He is a math teacher. (SVC)

I like gimbap. (SVO)

You can put the dish on the table. (SVOA)

He gave me a present. (SVOO)

They elected him president. (SVOC)

2015 영어과 교육과정에는 (11)에 제시된 항목을 포함하여 총 40 항목의 언어 형식이 350개의 용례들과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자동구동사 구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영어의 자동구동사 구문을 예외적인 특수 항목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그 존재 자체에 체계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자동구동사 구문이 지니는 언어적 자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구동사 구문은 영어를 비롯한 게르만계어의 유형론적 특질을 대표하는 구문으로서(Dagut & Laufer, 1985), 조각말이라는 위성어(satellite)를 통해 이동과 방향을 표현하는 위성어 체계 언어(satellite-framed language)의 핵심적 자질에 해당한다(Talmy, 1985, 2000). Berman과 Slobin(1994) 및 Slobin(1997)에 따르면, 자동구동사 구문의 이러한 유형론적 특질은 영어 모국어 사용자가 위성어 체계를 기반으로 명제적 단위의 의사소통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어의 습득과 사용의 측면에서도 자동구동사 구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영어 습득 초기 단계에서 자동구동사 구문은 논항 구조의 단계적 발달의 기본적 바탕으로 기능하며, 다양한 의사소통 욕구를 충족하는 도구로서 사용된다(Choi & Bowerman, 1991; Tomasello, 1987). 더불어 영어권의 성인 화자들은 자동구동사 구문을 일상적인 의사소통 활동에서 효율적인 소통의 도구로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한다(Liu, 2011).

본 논문에서는 이른바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이라고 알려진 Goldberg(1995,

2006) 등의 언어이론 체계에 바탕을 두어, 영어의 자동구동사 구문이 주요 논항구조 구문의 핵심적 체계 내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Bolinger(1971) 등의 관찰에 바탕을 두어, 자동구동사 구문이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intransitive motion phrasal verb construction)과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intransitive resultative phrasal verb construction)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밝힌 다음,

(12)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 He stood up.

(13)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 The house burned up.

전자가 자동이동 구문(intransitive motion construction)의 특질을 지니는 반면 후자가 자동결과 구문(intransitive resultative construction)의 특질을 지니는 밝히는데 주된 초점을 둔다. 본 논문의 이러한 노력은 자동구동사 구문을 영어의 핵심 구문과 동떨어진 예외적인 구조로 간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영어의 핵심 구문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다음 절인 II절에서는 먼저 자동구동사 구문의 언어적 본질을 Bolinger(1971)를 비롯한 인지언어학 연구에 바탕을 두어 살펴본다. III절의 초반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에 바탕을 두어, 자동이동 구문과 자동결과 구문을 중심으로 영어의 주요 논항구조 구문을 살펴본다. III절의 중반에서는 자동구동사 구문이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과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으로 나뉘어 분석될 수 있음을 살펴본다. III절의 후반에서는 자동이동 구문으로서의 자동구동사 구문과 자동결과 구문으로서의 자동구동사 구문이 영어의 논항구조 구문 체계 안에서 어떠한 구문적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본다. 마무리인 IV절에서는 본 논문의 주된 논의가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미치는 함의에 대해 살펴본다.

II. 자동구동사 구문의 언어적 본질과 유형

인지언어학의 주요 연구에서는 구동사의 언어적 특징을 규명함에 있어 조각말의 의미적 자질에 초점을 두어 왔다. Stefanowitch와 Gries(2005)에서는 대다수의 구동사에 서 동사가 구체적인 의미를 덜 지니는 반면 조각말이 다양하고도 풍부한 의미를 지니는 관찰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Side(1990, p. 146)에서도 비슷한 관찰을 제시하였는데,

“The point is that in all phrasal verbs the particle carries some meaning.

In many, it carries most of the meaning.”

여기서는 특히 영어의 주요 조각말이 구동사의 공간적 의미와 결과적 의미를 나타냄을 밝히었다. 이러한 논의는 조각말의 언어적 특질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라고 알려진 Bolinger(1971, p. 85)의 관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The importance of the resultant condition suggests a hypothesis about the nature of the adverbial particles that may form part of a phrasal verb. I offer this: In its core meaning . . . the particle must contain two features, one of motion through location, the other of terminus or result.”

Bolinger는 조각말의 의미적 특징에 초점을 두어 구동사의 조각말을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한 가지는 움직임(motion)을 뜻하는 유형이고, 다른 한 가지는 결과(result)를 뜻하는 유형이다. 다음은 이 두 유형의 조각말이 사용된 구체적인 예문이다.

(14) He stood up.

(15) The house burned up.

(16) The boy came out.

(17) The light went out.

(18) The boy fell down.

(19) The wind died down.

(14), (16) 및 (18)에서는 조각말이 움직임의 경로 또는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고, (15), (17) 및 (19)에서는 조각말이 (어떤 행위의) 결과 상황을 나타낸다.²⁾

본 논문에서는 Bolinger를 비롯한 인지언어학의 주요 학자들의 이러한 관찰에 바탕을 두어, 조각말의 의미를 기준으로 자동구동사 구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한 가지는 이른바 조각말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유형이고, 다른 한 가지는 결과를 나타내는 유형이다: 이하에서는 전자를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이라고 부른다.³⁾

2) 이동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조각말과는 대조적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조각말은 자동사와 더 붙어 숙어적 표현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숙어적 표현으로서 결과 상황을 나타내는 조각말에 대한 주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Alejo(2010), Boers(2004), Boers와 Lindstromberg(2012), Condon(2008), Lakoff와 Johnson(1980), Yasuda(2010).

3) 영어의 자동구동사 구문을 유형화하는 노력은 Sung(2018)에서도 관찰된다. Sung(2018)에서는 영어의 자동구동사 구문을 자동어구(intransitive literal) 구동사 구문과 자동비유(intransitive figurative) 구동사 구문으로 구분한 다음, 이를 각각 자동이동 구문과 자동결과 구문에 연계하였다.

한편, 자동구동사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과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 사이에는 은유적 확장(metaphorical extension)의 관계가 있다. Rudzka-Ostyn(2003) 및 Tyler와 Evans(2003) 등의 인지언어학자들은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동사의 조각말의 공간적 의미가 결과적 의미와 연관된다고 제안한다. 다음은 Flower(1993)와 Heaton(1995)에서 가져온 것으로,

(20) 조각말 up의 공간적 의미와 결과적 의미

- 1) upward movement: e.g., *stand up*
- 2) completion: e.g., *open up*
- 3) increase: e.g., *speak up*
- 4) improvement: e.g., *dress up*

이들에 따르면 자동구동사 구문의 조각말 up은 (20.1)의 의미를 공간적 의미로 지니는 한편 이 의미는 (20.2)~(20.4)의 결과적 의미와 은유적으로 연계된다. 한편 다음은 조각말 out과 down이 사용된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과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의 쌍들인데,

(21) The boy went out. - The light went out.

(22) The boy fell down. - The plan fell down.

이 각각의 쌍에서도 은유적 확장—공간적 의미로부터 결과적 의미로의 은유—이 관찰된다. 이 글에서는, 특히 III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동이동 구문사 구문과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 사이의 은유적 연계 관계가 구문 간 상속 연계로 파악될 수 있음을 밝힌다.

III. 자동구동사 구문에 대한 구문문법적 이해

A. 구문문법과 논항구조 구문

본 논문에서는 이른바 구문문법이라고 알려진 이론 체계를 전제하는데, 이 이론의 논항구조 구문문법(argument structure construction grammar)에 따르면 자연언어의 문장들은 몇 가지의 주요 구문으로 유형화되며 이들 구문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 관계를 지

닌다. <표 1>은 영어 문장에 대한 논항구조 구문 분류를 Goldberg(1995)에서 옮겨온 것이다.

<표 1> 영어 논항구조 구문(English Argument Structure Construction)

Construction	Form	Meaning
Intransitive motion	Sub V Obl _{path/location} e.g., <i>The fly buzzed into the room.</i>	X moves Y _{path/location}
Intransitive resultative	Sub V RP e.g., <i>The bottle broke open.</i>	X becomes Y _{state}
Transitive	Sub V Obj e.g., <i>The man read the book.</i>	X acts on Y
Caused-motion	Sub V Obj Obl _{path/location} e.g., <i>Pat sneezed the foam off the cappuccino.</i>	X causes Y to move Z _{path/location}
Transitive resultative	Sub V Obj RP e.g., <i>She kissed him unconscious.</i>	X causes Y to become Z _{state}
Ditransitive	Sub V Obj ₁ Obj ₂ e.g., <i>She faxed him a letter.</i>	X causes Y to receive Z

구문문법에서는 문장을 “형태(Form)와 의미(Meaning)의 짝”으로 분석하며, 각각의 “형태와 의미의 짝”을 논항구조 구문(argument structure construction)이라고 부른다. 구문 문법에 따르면 “형태와 의미의 짝”으로서의 논항구조 구문은 문장을 이루는 요소로부터 독립적이다. 예를 들어, <표 1>의 예시문 가운데 “Pat sneezed the foam off the cappuccino”는 “[Sub V Obj Obl_{path/location}]”라는 형태와 [X causes Y to move Z_{path/location}]라는 의미의 짝”으로서의 사역이동 구문이며, 이 문장의 이러한 구문적 특징은 그 구성 성분으로부터 유래된다기보다는 사역이동 구문으로서의 이 문장이 지니는 독자적 특징이다. 이를테면, 이 문장의 구문적 특징이 동사 sneeze로부터 유래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에 제시된 여러 구문 가운데 이 논문에서는 특히 자동이동(intransitive motion) 구문과 자동결과(intransitive resultative) 구문에 초점을 두는데, 그 까닭은 이 논문의 주된 연구 대상인 자동구동사 구문이 이들 구문과—형태와 의미의 측면에서—체계적이고도 긴밀한 관련을 지니기 때문이다.

B. 자동이동 및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의 구문문법적 분석

1.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 자동이동 구문으로서의 자동구동사 구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어의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에서는 조각말이 움직임을 나

타낸다. 이 논문에서는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을 자동이동 구문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다음은 영어의 자동이동 구문을 예시한 것이다.

(23) The fly buzzed into the room.

(24) The hay flew onto the truck.

(25) The hat blew off his head.

자동이동 구문은 (주어와 동사 이외에) 장소 또는 경로를 나타내는 부사구를 필요로 한다. 한편, [그림 1]은 자동이동 구문의 구문문법적 특질에 대한 제안을 Goldberg(1995)에서 옮겨온 것이며,

Sem	MOVE	<theme	goal>
	PRED	<	>
Syn	V	SUBJ	OBL

[그림 1] 자동이동 구문(Intransitive Motion Construction)

다음은 이러한 자동이동 구문의 구문문법적 특질을 구성 성분에 초점을 두어 나타낸 것이다.

(26) Intransitive Motion Construction(자동이동 구문)

Form: V {NP, PP}

Meaning: move (theme, goal)

정리하면, 자동이동 구문은 주어, 동사, 그리고 장소 또는 경로 부사구로 이루어지며, 의미적으로는 주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이동함을 나타낸다. 이 때 주어는 주로 (대)명사구로 표현되며 장소 또는 경로 부사구는 전치사구로 표현된다.

자동이동 구문의 이러한 언어적 특질은 이 논문의 주된 논의 대상 가운데 한 가지인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에서도 관찰된다. 첫째,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은, Bolinger(1971)와 관련하여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주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이동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적 특질은 바로 자동이동 구문이 지니는 의미적 특질이다.

둘째,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은 (주어, 동사 이외에) 장소 또는 경로를 나타내는 표

현(예: up)을 필요로 한다.

(27) John stood up.

이러한 구성 체제는 자동이동 구문의 구성 체제와 다르지 않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자동이동 구문에서는 부사표현이 주로 전치사구(prepositional phrase)인데 비하여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에서는 하나의 단어—조각말—라는 점을 들 수 있다:

(28) The sunlight came *in the window*./The sunlight came *in*.

(29) The plane took *off the runway*./The plane took *off*.

한편, Goldberg(2016)와 Zeller(2002) 등에 따르면, 조각말은 자동적 전치사(intransitive preposition)로서 품사적으로는 전치사의 한 부류에 속하며, 세부 항목으로서의 조각말은 그 상위 상목인 전치사에 비하여 보다 상세한 문법적 정보를 지닌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이 지니는 구문문법적 특징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Sem	MOVE	< <i>theme</i>	<i>goal</i> >
	PRED	<	>
Syn	V	SUBJ	Prt

[그림 2]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Intransitive Motion Phrasal Verb Construction)

2.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 자동결과 구문으로서의 자동구동사 구문

Bolinger(1971)의 관찰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어의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에서는 조각말이 결과를 나타낸다. 이 논문에서는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을 자동결과 구문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다음은 영어의 자동결과 구문을 예시한 것이다.

(30) The bottle broke open.

(31) The window broke into pieces.

(32) The kettle boiled dry.

자동결과 구문은 (주어와 동사 이외에)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전치사구 또는 형용사구 등—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다음은 자동결과 구문의 구문문법적 특질에 대한 제안을 Goldberg(1995)에서 옮겨온 것이며,

Sem	BECOME	< <i>theme</i>	<i>goal</i> >
	PRED	<	>
Syn	V	SUBJ	OBL _{PP/AP}

(그림 3) 자동결과 구문(Intransitive Resultative Construction)

다음은 자동결과 구문의 구문문법적 특질을 구성 성분에 초점을 두어 나타낸 것이다.

(33) Intransitive Resultative Construction (자동결과 구문)

Form: V {NP, PP/AP}

Meaning: become (theme, goal)

정리하면, 자동결과 구문은 주어, 동사와 더불어 결과를 나타내는 구(resultative phrase)로 이루어지며, 의미적으로는 주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어떤 결과적 상태에 이르게 됨을 나타낸다.

자동결과 구문의 이러한 언어적 특질은 이 논문의 주된 논의 대상 가운데 한 가지인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에서도 관찰된다. 첫째,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은 (주어와 동사 이외에)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필요로 한다.

(34) The house burned up.

이러한 구성 체제는 자동결과 구문의 구성 체제와 다르지 않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자동결과 구문에서는 결과 표현이 전치사구나 형용사(구)임에 비하여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에서는 단어—조각말—이라는 점이며, 조각말은 자동적 전치사로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치사의 한 부류에 속한다. 또한 세부 항목으로서의 조각말은 그 상위 상목인 전치사에 비하여 보다 상세한 문법적 정보를 지닌다.

둘째,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은, Bolinger(1971)의 인용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듯이, 주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어떤 결과적 상태에 이르게 됨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적 특

질은 바로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이 지니는 의미적 특질이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의 구문문법적 특질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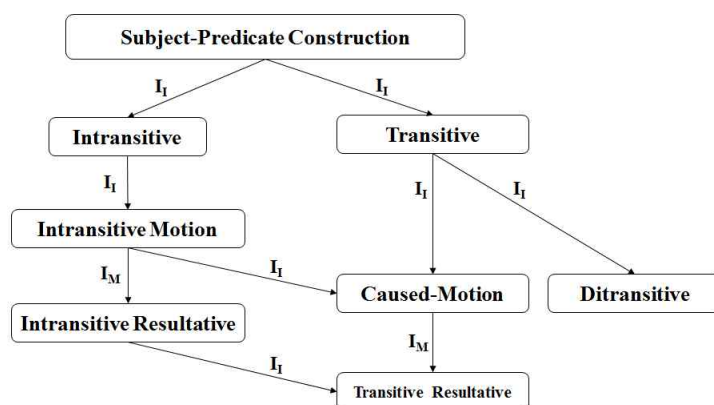
Sem	BECOME	< <i>tbene</i>	<i>goal</i> >
	PRED	<	>
Syn	V	SUBJ	Prt

[그림 4]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Intransitive Resultative Phrasal Verb Construction)

C. 자동구동사 구문의 구문적 본질

1. 주요 논항구조 구문으로서의 자동구동사 구문

이상의 논의에서는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과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이 각각 자동이동 구문과 자동결과 구문과—형태와 의미에 있어서—상당한 연계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편 구문문법에 따르면, <표 1>에 제시된 영어의 주요 논항구조 구문들은 형태-의미 자질의 연계를 바탕으로 서로 위계망을 형성한다.



[그림 5] 영어 논항구조 구문의 상속 연계망(Sung & Yang, 2016, p. 92)

위에 예시된 연계망 가운데 I_I 는 사례 상속 연계(instance inheritance link)를 나타내며, 다

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설정된다.

(35) 사례 상속 연계(Goldberg, 1995, pp. 79-81)

가. 두 구문 사이에 상충되는 정보가 없다.

나. 한 구문이 지닌 정보가 다른 구문이 지닌 정보보다 상세화되어 있다.

그런데,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과 자동이동 구문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관찰된다. 다음에 제시된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구문 사이에는 상충되는 정보가 없는 한편,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은 자동이동 구문에 비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Sem	MOVE	< <i>theme</i>	<i>goal</i> >
	PRED	<	>
Syn	V	SUBJ	OBL

〔그림 1〕 자동이동 구문

Sem	MOVE	< <i>theme</i>	<i>goal</i> >
	PRED	<	>
Syn	V	SUBJ	Prt

〔그림 2〕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

특히, (35나)와 관련하여, 자동이동 구문에서는 장소 또는 경로가 전치사구로 실현되는데 비하여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에서는 그보다 더 상세화된 구조—즉, 자동적 전치사인 조각말—로 실현된다.

또한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과 자동결과 구문 사이에도 사례 상속 연계 관계가 충족된다. 다음에 제시된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구문 사이에는 상충되는 정보가 없는 한편,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은 자동결과 구문에 비하여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Sem	BECOME	< <i>theme</i>	<i>goal</i> >
	PRED	<	>
Syn	V	SUBJ	OBL _{PP/AP}

〔그림 3〕 자동결과 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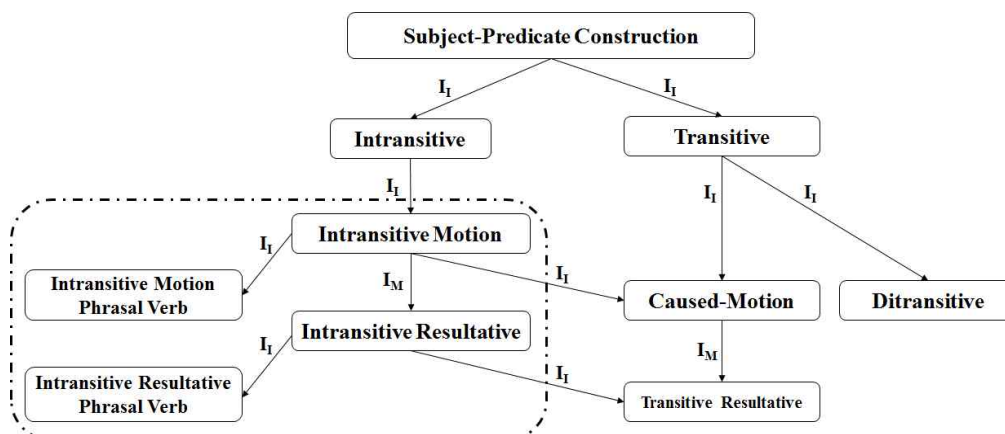
Sem	BECOME	< <i>theme</i>	<i>goal</i> >
	PRED	<	>
Syn	V	SUBJ	Prt

〔그림 4〕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

특히, (35나)와 관련하여, 자동결과 구문에서는 결과적 상태가 전치사구 또는 형용사구로 실현되는데 비하여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에서는 그보다 더 상세화된 구조—즉, 자

동적 전치사인 조각말로 실현된다.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과 자동이동 구문 및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과 자동결과 구문들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상속 연계로 도식화하여, [그림 5]를 보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영어 논항구조 구문의 상속 연계망(수정)

이 절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의 앞선 논의 가운데, 자동구동사 구문의 한 가지 특징—조각말이 단어적 성분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보자. 잘 알려진 것과 같이, 구동사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동사가 조각말과 더불어 관용적 또는 숙어적인 뜻을 형성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이다(Bolinger, 1971; Celce-Murcia & Larsen-Freeman, 1999). 다음은 동사와 조각말이 숙어적 표현을 형성하는 예이다.

(36) 숙어적 자동구동사

back down: retreat

check out: leave

set off: begin a journey

slip up: make a mistake

한편, Lieber(1992) 및 Selkirk(1982) 등의 어휘 형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숙어적 표현의 생성은 흔히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빈번히 그리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진다.⁴⁾ 본 연구에서는 조각말을 단어적 성분이라고 분석하는 바, 이러한 특성이 자동구동사 구문

4) 또한 결과구문의 숙어적 특징에 대한 구문문법 연구에 따르면, 결과구문의 동사와 결과표현 사이에는 밀접한 언어(collocation) 관계가 존재하며(Boas, 2003), 이러한 언어 관계는 흔히 숙어적 의미 심화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한다(Gilquin, 2015). 한편, 관용적 또는 숙어적으로 쓰이는 자동구동사의 조각말은 이동의 뜻이 아니라 결과의 뜻을 지닌다. 즉, 자동결과 구동사가 숙어적으로 쓰인다.

의 숙어적 의미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과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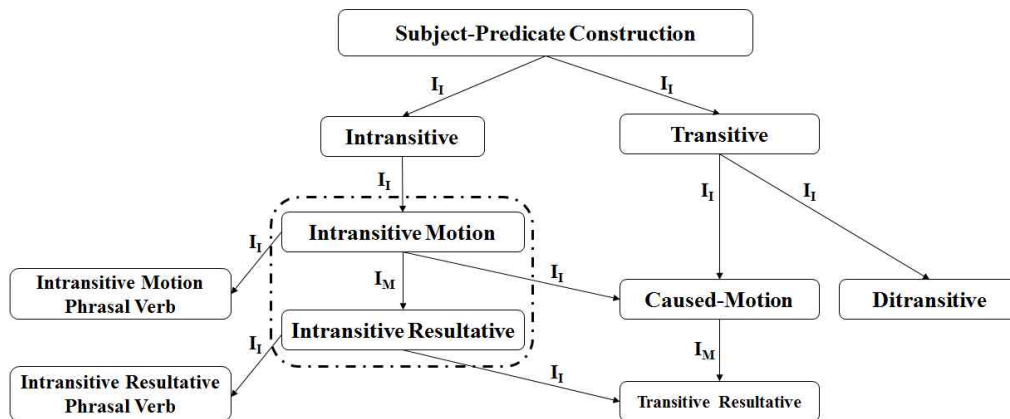
II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과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은 은유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구문문법에서는 이러한 구문 사이의 은유적 관계를 은유적 확장 상속 연계(metaphorical extension inheritance link)로 이해한다:

(37) 은유적 확장 상속 연계(Goldberg, 1995, p. 81, pp. 88-89)

가. 한 구문의 의미가 다른 구문의 의미와 은유적 관계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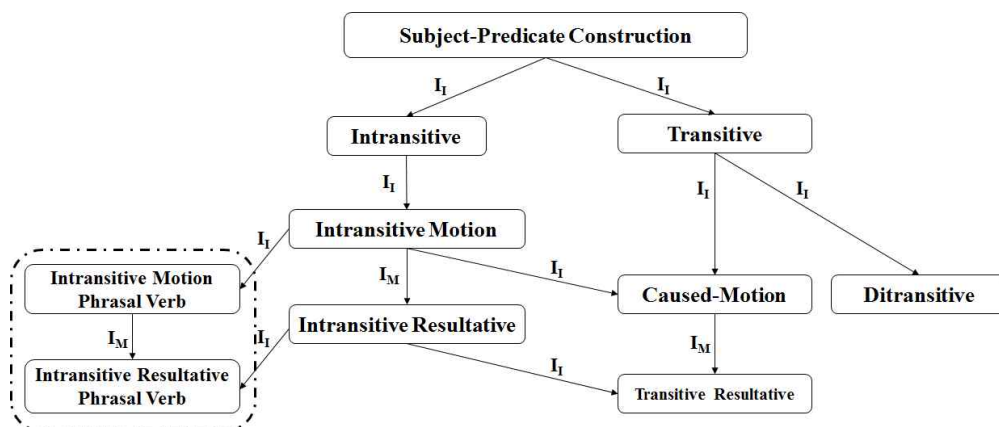
나. 은유적 확장이 전개되는 방향으로 구문적 자질이 상속된다.

다음 [그림 6-1]에는 은유적 확장 상속 연계가 I_M 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연계는, 예를 들면, 자동이동 구문과 자동결과 구문 사이에서 관찰된다: Goldberg(1995)에 따르면, 자동이동 구문의 공간적 의미가 자동결과 구문의 결과 상태의 의미로 은유적으로 확장된다.



[그림 6-1] 영어 논항구조 구문의 상속 연계망(수정)

II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은유적 확장이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과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 사이에서 관찰됨을 확인하였던 바, 이 두 구문 사이에 존재하는 은유적 확장 관계를 은유적 상속 연계로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영어 논항구조 구문의 상속 연계망(최종)

IV. 마무리

영어를 외국어로 익히는 우리나라 영어학습자들에게 구동사의 학습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어려움의 근원 가운데 한 가지는 구동사의 학습이 항목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Jang(2014)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어 학습의 현장에서 구동사에 대한 학습은 개별 구동사 표현 또는 동사나 조각말과 같은 구성 성분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구동사에 대한 주요 문법 문헌에서는 이 구문을 영어의 주요 문장 체계에서 이해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구동사를 다어동사 또는 이어동사의 일부 항목으로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개별 항목으로 이해한다. 구동사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구동사가 영어의 문장 체계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과 조화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동사의 학습과 교육을 체계적인 기반 위에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의 자동구동사 구문이 영어의 주요 구문 체계 안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이러한 노력은 영어의 문장 체제 자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언어학적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영어의 자동구동사 구문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하는데 의미 있는 밑바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테면,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을 교육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동

이동 구문과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의 교육을 보다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Torres-Martínez, 2018). 특히 자동이동 구문이 Quirk 등(1985, pp. 720-721)에 영어 문장의 핵심 유형의 한 유형—SVA—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7) Major clause types(주요 문장 유형)

SVO He'll get a surprise.

SVC He's getting angry.

SVA He got through the window.

SVOO He got her a splendid present.

SVOC He got his shoes and socks wet.

SVOA He got himself into the trouble.

이 구문에 대한 이해와 교육에 기반을 두어 자동이동 구동사 구문을 교육하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은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의 교육에도 열려 있다. 즉, 자동결과 구동사 구문을 교육하는 바탕을 마련함에 있어서 자동결과 구문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⁵⁾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영어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2015). *English curriculum*. Seoul: Ministry of Education.]
 문용. (2017). **고급영문법해설(4판)**. 서울: 박영사.
 [Moon, Y. (2017). *Advanced English grammar* (4th Edition). Seoul: Bakyounghsa.]
 양현권. (2008). 교육영문법과 영어교육. 양현권, 정영국 (편). **교육영문법의 이해** (pp. 11-34). 서울: 한국문화사.
 [Yang, H.-K. (2008). Educational grammar and English education. In H.-K. Yang & Y.-K. Jeong (Eds.), *Understanding educational English grammar* (pp. 11-34). Seoul: Hangukmunhwasa.]
 Alejo, R. (2010). Making sense of phrasal verbs: A cognitive linguistic account of L2 learning. *AILA Review*, 23(1), 50-71.

5) 외국어 학습 및 교육의 체계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외국어의 언어적 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양현권(2008)과 Yang 등(2014)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러한 교육적 전제를 배경으로 영어의 구동사 교육의 효과를 구문문법의 체제에 바탕을 두어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Sung(2018)이 있다.

- Berman, R. A., & Slobin, D. I. (1994). Development of linguistic forms: English. In R. A. Berman & D. I. Slobin (Eds.), *Relating events in narrative: A cross linguistic developmental study* (pp. 127-188).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Boas, H. C. (2003). *A constructional approach to resultatives*. Stanford: CSLI Publications.
- Boers, F. (2004). Expanding learners' vocabulary through metaphor awareness: What expansion, what learners, what vocabulary? In M. Achard & S. Niemeier (Eds.), *Cognitive linguistics,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foreign language teaching* (pp. 211-232). Berlin, Germany: Mouton de Gruyter.
- Boers, F., & Lindstromberg, S. (2012). Experimental and intervention studies on formulaic sequences in a second language.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2, 83-110.
- Bolinger, D. (1971). *The phrasal verb in English*.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elce-Murcia, M., & Larsen-Freeman, D. (1999). *The grammar book*. Boston, MA: Heinle & Heinle.
- Choi, S., & Bowerman, M. (1991). Learning to express motion events in English and Korean: The influence of language-specific lexicalization patterns. *Cognition*, 41(1-3), 83-121.
- Condon, N. (2008). How cognitive linguistic motivations influence the learning of phrasal verbs. In F. Boers & S. Lindstromberg (Eds.), *Cognitive linguistic approaches to teaching vocabulary and phraseology* (pp. 133 - 158). Berlin, Germany: Mouton de Gruyter.
- Dagut, M., & Laufer, B. (1985). Avoidance of phrasal verbs: A case for contrastive analysi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7(1), 73-79.
- Flower, J. (1993). *Phrasal verbs organizer*. Hove: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Gilquin, G. (2015). The use of phrasal verbs by French-speaking EFL learners: A constructional and collostructional corpus-based approach. *Corpus Linguistics and Linguistic Theory*, 11(1), 51-88.
- Goldberg, A. E. (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ldberg, A. E. (2006). *Constructions at work: The nature of generalization in language*. New York, US: Oxford University Press.
- Goldberg, A. E. (2016). Tuning in to the verb-particle construction in English. In L. Nash & P. Samvelian (Eds.), *Approaches to complex predicates* (pp. 110-141). Leiden: Brill.
- Heaton, J. B. (1995). *Practise your phrasal verbs*. Harlow: Longman.
- Huddleston, R., & Pullum, G. K.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ng, H.-Y. (2014). *Effects of particle-focused instruction on the learning of verb-particle construction by Korean high school English learners*. MA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 we live by*.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Lieber, R. (1992). *Deconstructing morph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iu, D. (2011). The most-frequently used English phrasal verbs in American and British English: A multi-corpus examination. *TESOL Quarterly*, 45(4), 661-688.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 New York: Longman.
- Rudzka-Ostyn, B. (2003). *Word power: Phrasal verbs and compounds*. New York: Mouton de Gruyter.
- Selkirk, E. (1982). *The syntax of words*. Cambridge, MA: MIT Press.

- Side, R. (1990). Phrasal verbs: Sorting them out. *ELT Journal*, 44(2), 144-152.
- Slobin, D. I. (1997). Mind, code, and text. In J. Bybee, J. Haiman, & S. A. Thompson (Eds.), *Essays on language function and language type* (pp. 437-467). Amsterdam: John Benjamins.
- Stefanowitch, A., & Gries, S. T. (2005). Covarying collexemes. *Corpus Linguistics and Linguistic Theory*, 1, 1-43.
- Sung, M.-C. (2018). *Effects of construction-grammar-based instruction on the learning of English verb-particle constructions by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Sung, M.-C. & Yang, H.-K. (2016). Effects of construction-centered instruction on Korean students' learning of English transitive resultative constructions. In S. De Knop & G. Gilquin (Eds.), *Applied construction grammar* (pp. 89-113). Berlin: De Gruyter Mouton.
- Talmy, L. (1985). Lexicalization patterns: Semantic structure in lexical forms.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pp. 57-149).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lmy, L. (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2). Cambridge, MA: The MIT Press.
- Tomasello, M. (1987). Learning to use prepositions: A case study. *Journal of Child Language*, 14, 79-98.
- Torres-Martínez, S. (2018). Exploring attachment patterns between multi-word verbs and argument structure constructions. *Lingua*, 209, 21-43.
- Tyler, A., & Evans, V. (2003). *The semantics of English preposition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ng, H.-K., Kim, R., & Sung, M.-C. (2014). Basic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sentential utterance production.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3, 97-116.
- Yasuda, S. (2010). Learning phrasal verbs through conceptual metaphors: A case of Japanese EFL learners. *TESOL Quarterly*, 44(2), 250-273.
- Zeller, J. (2002). Particle verbs are heads and phrases. In N. Dehé, R. Jackendoff, A. McIntyre, & S. Urban (Eds.), *Verb-particle explorations* (pp. 233-267).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양현권 (yhkeun@snu.ac.kr)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재직 중이며, 영어통사론, 교육영문법 및 영어학습론 분야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해 옴.

성민창 (minchang.sung@gmail.com)

경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출강하고 있으며, 구문문법, 교육영문법 및 말뭉치응용언어학 분야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해 옴.

